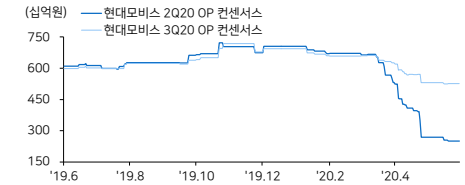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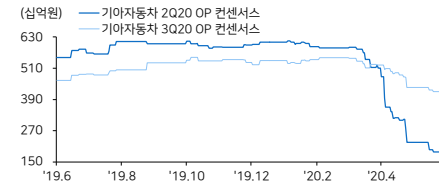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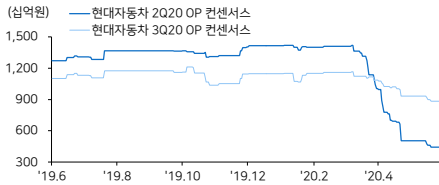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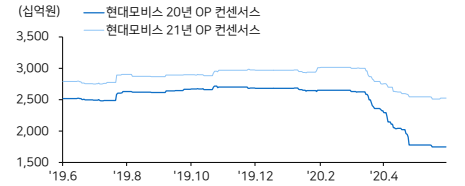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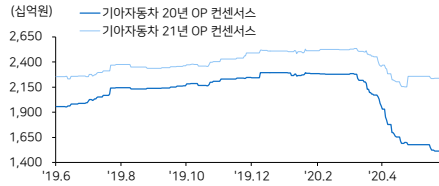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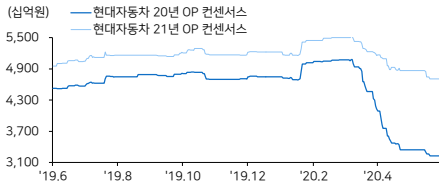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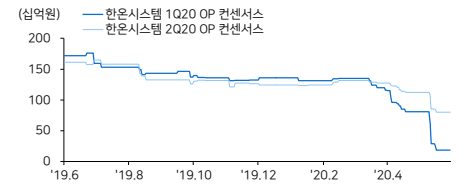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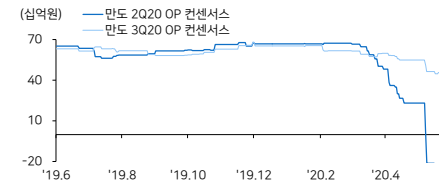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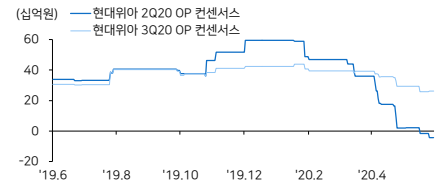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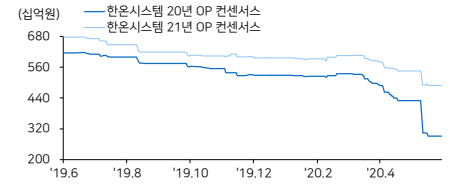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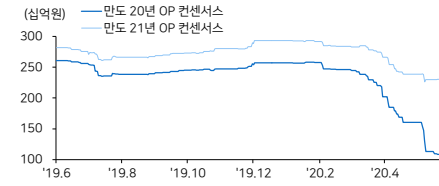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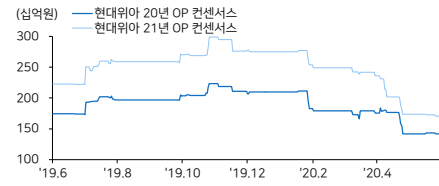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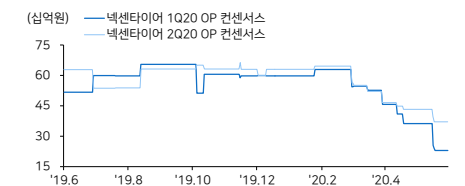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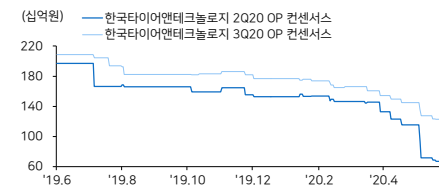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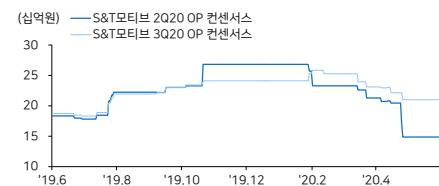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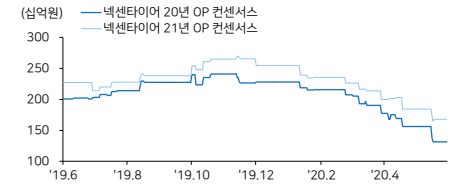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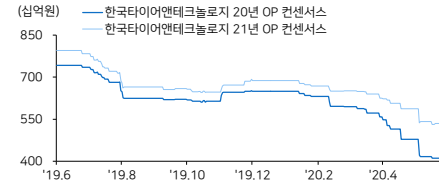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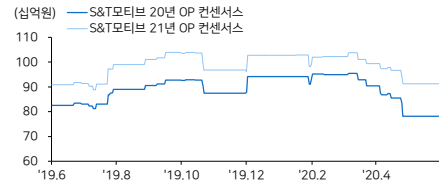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제네시스 공공차 첫 차종은 'GV80' (동아닷컴)

중국 시장 진출 시점을 저율질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중국 공략에 나서는 첫 차종은 올해 초 국내에 출시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GV80'이 될 것으로 보임.
<https://bit.ly/3cyNa5i>

현대차 노사, 2020 임금단결 7월 초 상건례 한다 (조선비즈)

현대차 노사가 7월 초 2020년 임금단체협상 첫 상건례를 갖음. 7월 2~3일 임금단결 요구안 원안을 확정된 후 그 다음주에 상건례를 하는 방안을 사측에 요청할 방침.
<https://bit.ly/30eb들>

코로나19 충격 브라질 자동차시장 슬럼프...5월 판매량 12% ↓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멈춰 섰던 브라질 자동차 산업이 조금 활기를 되찾는 것으로 보임. 브라질 자동차타이어협회(Fenabrave)에 따르면 지난달 판매량은 6만2천197대를 기록해 4월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bit.ly/3eKCa6i>

"테슬라 게 setter" 중국 지리 전기차 전시장 확충 (국민일보)

중국 최대 자동차 그룹 지리가 테슬라와의 일전을 선포,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전시장(쇼룸)도 대폭 확장기로 2일 발표. 지리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 폴스타는 볼보의 기술을 활용하는 고급 전기차 생산을 하고 있음.
<https://bit.ly/2U2minN>

기아차, 안방서 실적 '뻥뻥'...코로나 돌고 가속페달 (한국경제)

기아차 주가가 자동차주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음. 신차 효과로 내수 판매가 호조를 보이자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고 있음. 지난 4월 말 이후 상승률은 23.1%에 달함.
<https://bit.ly/3eH7WZ>

코로나19에도 유럽 전기차 판매량 증가 (전자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올여 유럽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줄었지만 전기차 판매량은 오히려 크게 증가. 유럽 내 1~4월 전기차 판매량이 26만982대로 집계.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19년 1~4월) 16만3322대보다 약 40% 증가.
<https://bit.ly/3csJxxA>

獨-美 전기차 등에 입고 한국 추격하는 中배터리 (동아닷컴)

중국 전기차자동차용 배터리 업체가 세계 특급인 한국 기업들을 바짝 뒤쫓고 있음. 독일, 미국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기차 시장을 노리고 있음.
<https://bit.ly/2Kr5frc>

폭스바겐-포드 상용차 공동개발 나선다 (한국일보)

유럽 상용자동차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폭스바겐과 포드가 소형 상용차 개발 협력을 발표. 이번 협력은 폭스바겐과 포드가 조인트 업체에 대한 동등한 지분 확보 및 기술 참여 방식으로 진행.
<https://bit.ly/2Mtrbpg>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